‘작은 100원’으로 전한 ‘큰 희망’

부산생명나눔, 환우 위한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장기이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기부전 환우에게 희망을 전하고 작은 정성 100원을 십시일반 모아 도움을 안겨주는 따뜻한 콘서트가 개최됐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11월 15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12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를 열어 희망을 선사했다.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는 경제적 ·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환우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큰 희망을 안겨준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콘서트에서는 해동고교 학생들이 모은 저금통 103개 성금 154만610원과 사단법인 미소원 회원이 1년 동안 모은 성금 515만8천원을 기탁하는 전달식도 열렸다. 미소원 회원들은 성금을 전달하며 정성이 담긴 모금 과정도 전해 훈훈함을 남겼다. 미소원 회원들은 성금 모금을 3년 동안 이어오며 환우 돕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범 단체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회원들의 기도금을 모아 준비했다. 또 회원들이 하루에 100원, 500원 등 정말 작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정성이다”며 “3년 동안 함께 도울 수 있어 기쁘다. 환우들의 아픔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기 환우 치료비 전달식 및 특별환우 소개가 이어졌다. 정기 환우 치료비는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이유나(7) 양과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앓고 있는 조승철 씨에게 전달됐다. 특별 환우로는 뇌병변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김서영(가명 · 3) 어린이의 사연이 소개됐다. 김서영 어린이는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호흡곤란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그 충격으로 발달지연을 겪게 됐다. 현재 발달 재활치료을 이어가며 난청 귀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치료비가 시급하다. 부산생명나눔은 “힘든 병마로 인해 고통 받는 환우들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도 큰 사랑과 행복을 느낀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100원 십시일반 희망 저금통
절망 극복 큰 정성 되어 회향
환우 선정 및 사례 발표 ‘눈물’
사부대중 촛불 밝혀 행복 기원

콘서트장에는 특별한 사연을 담은 참가자의 소개도 이어졌다. 직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이어가는 노진석 씨와 장기기증 유가족인 홍우기 씨는 무대에 차례로 올라 감사 인사와 함께 장기기증 사례를 전했다.

노진석 씨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하나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직장암이란 선고는 또 한 번의 고통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심정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병원에 전달된 생명나눔 성금은 한줄기 희망과 같았고 살 수 있다는 용기를 안겨준 따뜻한 격려가 됐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인드라 스님의 공연에 맞춰 사부대중이 초를 들고 함께 노래하는 모습.

장기기증 유가족인 홍우기 씨는 “아들 윤길이가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아들을 보내며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했다”며 “현재 아들의 심장과 간, 콩팥 2개는 20~40대 환자 4명에게 각각 전달돼 새롭게 태어났고, 안구 2개도 시각장애인 2명이 이식받아 새 빛을 찾았다”며 사연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러자 대중은 흐느끼며 홍 씨의 아픔에 공감했다. 이어 홍 씨는 “지금은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을 홍보하며 아들을 기리고 삶의 고통에서 일어났다”며 장기기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콘서트는 인드라 스님, 백련싱어즈 및 윈다(winda)의 공연으로 채워졌으며 부산생명나눔 부본부장 자인 스님, 목종 스님을 비롯해 이사 스님들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콘서트 마지막 발원의 시간에서는 대중이 함께 촛불을 켜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세상을 기원했다.

부본부장 자인 스님은 “이번 한 해 부산생명나눔은 76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전달하고 환우들을 격려 응원했다”며 “이 모든 것은 부산 불자들의 힘이다. 그 작은 정성이 모여 희망으로 빛을 발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단이슬어린이합창단, 창단발표회 열린다

12월 3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다우홀서

관음사 단이슬어린이합창단이 창단 발표회를 통해 대중들과 만난다. 관음사는 천진불자의 행복한 음성 공양 ‘꽃길 · 웃음길 · 마음길’ 창단 발표회를 준비 중이다.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는 단이슬어린이합창단 창단발표회를 12월 3일 오후 5시 동아대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꽃길 · 웃음길 · 마음길’이란 주제로 개최한다.

‘꽃길’은 어린이들이 나아갈 행복한 길을 의미하며 창작동요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꼭 안아줄래요’ 등 동심을 노래하고, ‘웃음길’은 ‘부모님의 열 가지 은혜’라는 곡을 통해 부모에게 선물 같은 곡을 선사한다. 마지막 ‘마음길’은 ‘기도를 하자’ ‘천진불 오신날’ ‘보현행원송’을 통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찬불가로 구성된다.


지난해 단이슬합창단이 서로 호흡을 맞추며 곡을 연습하는 모습.

단이슬어린이합창단은 지난해 7월 관음사 어린이법회 소속 구성원을 주축으로 창단했다. 현재 단원은 만 6~14세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일요일 법회 후 환희요양원 5층 강당에서 연습 중이다.

지현 스님은 “단이슬은 부처님의 감로를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 말한 것”이라며 “천진불의 행복하고 순순한 모습에서 번뇌를 맑게 식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응공조계종 창종 6주년 기념법회

“수행종단 거듭나길” 발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11월 11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창종 6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식전에는 관소리, 경기민요,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삼신이운 · 운심공양게 · 중단권공 · 육법공양 · 오공양작법 · 종사이운 등이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의장 보운 스님, 원로의원 평원 · 홍원 · 수덕 · 범승 · 혜담 · 혜광 스님, 태고종 종회의장 법도 스님, 문도회스님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원로의장 보운 스님의 개회선언과 선조사스님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마하사 주지 설송 스님은 “창종 6주년을 맞아 동참하신 모든 이에게 지혜 복덕이 가득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게 진여의 일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귀의 하여지이다”고 발원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큰 꿈을 품고 힘찬 첫 날갯짓을 한 6년 전의 날이 인연돼 오늘에 이르렀다”며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 자신을 반성하고 자성을 밝혀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을 위해 변함없이 수행에 매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응공조계종은 불교교리와 범음범패 교육에도 더욱 노력하며, 문수보살행의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수행종단으로 거듭나길 다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삼광사, 자비의 쌀 15톤 이웃 나눔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동참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김장철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봉사를 펼치고, 자비의 쌀 15톤을 나눴다.

삼광사(주지 세운)는 11월 14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하늘다리에서 개최된 ‘2017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삼광사는 3300만원 상당의 자비의 쌀 15톤(10kg 1,500포)을 부산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과 봉사자들은 행사에 참여해 함께 김치를 버무리며 격려했다. 세운 스님은 “지역의 소외계층들이 자비의 쌀과 김치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 자리에서 만든 35여 톤의 김치를 소외계층인 독거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및 무료급식소,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강서구불교聯, 지역복지 돕는 축제

부산 강서구불교연합회가 일일찻집과 음악회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을 마련했다.

부산강서구불교연합회(회장 운암)는 ‘더불어 사는 세상 자비의 일일찻집’을 11월 11일 부산 강서구 청량사에서 개최했다. 일일찻집에는 강서구불교연합회 회장 운암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소속 스님 30여 명과 노기태 강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모듬북 공연, 사물공연, 청량사 합창단 음성공양 등이 진행됐으며, 운암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보현사 법주 스님의 바라춤 공연, 어린이 밸리댄스, 초대가수 무대,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됐다. 이날 모연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강서구복지과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합창제 대상 ‘홍법사 불광합창단’

지휘자상 추현철 선정, 합창단연합 신임 지휘자로

2017년 부산불교합창제 경연대회 대상은 홍법사 불광합창단에게 돌아갔다. 아울러 지휘자상은 추현철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지휘자가 선정됐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 박화자)은 2017년 부산불교합창제 경연대회를 11월 14일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관음사 환희합창단 등 11개 팀이 참여했다.

행사는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 경연 및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개회식에서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등 내빈들이 축하하고 격려했다.

2부는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을 시작으로 각 합창단들이 자유곡 1곡과 지정곡 1곡으로 경연을 이어갔다. 특히 각 사찰 주지스님이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서 인사하며 음성 포교를 이어온 대중을 격려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상은 홍법사 불광합창단이 받았으며 금상은 대광명사 소리장엄합창이 수상했다. 특히 새롭게 제정된 지휘자상은 추현철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지휘자가 받았다. 앞으로 추현철 지휘자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을 이끌 예정이다.


부산불교합창제서 대상을 수상한 홍법사 불광합창단이 경연곡을 합창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한 배천종 지휘자는 “9년 동안 이끌어 왔던 부산연합합창제를 마지막으로 연합합창단 소임을 내려놓게 됐다”며 “신임지휘자는 화합을 과제로 더욱 정진하고 잘 이끌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대상을 받은 김행경 홍법사 불광합창단장은 “이 시간을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단원들과 연습했다”며 “앞으로도 음성 공양과 포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합창제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과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효원 정사를 비롯해 각 사찰 주지스님,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콩닥콩닥 아기 심장소리와 함께 커가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1 + 0 = 1

1 + 1 = 3

2 + 1 = 6

혼자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삶
가족이 늘어날수록
행복도 늘어납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보건복지부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